

매일 만나

2023. 1.

읍기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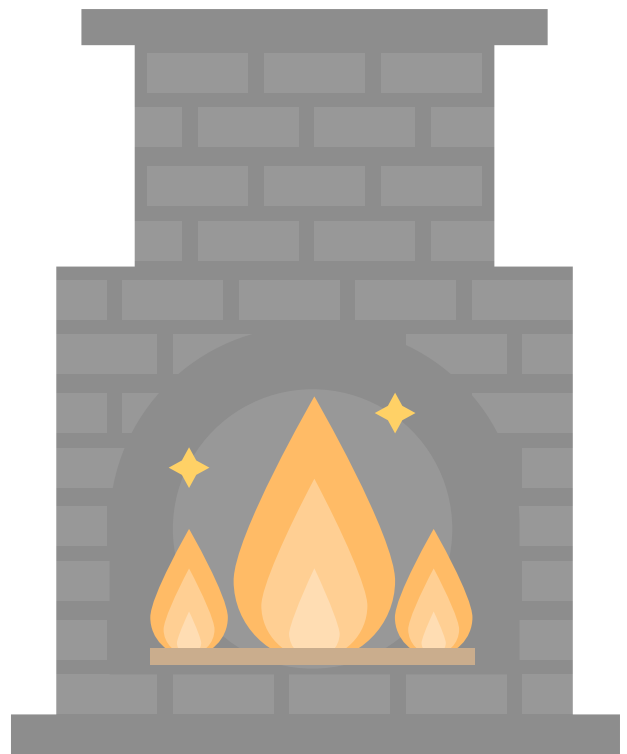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

2023 JAN

2022

4

5
목요일

6

7
금요일

8

9

10

11
토요일

12

13

14
일요일

15

16

17

18
월요일

19

20

21
화요일

22
수요일

23

24

25
목요일

26

27
금요일

28
토요일

29

30

31
일요일

주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신정
신년감사주일
공동의회

2

12,11
구약성경통독 학교
2일(월)-8일(금)

3

12,12

4

12,13
구역장 & 부구역장 세미나

5

12,14

6

소환
연합구역예배

7

12,16
제1차 자연심방
(원주봉화산)

8

12,17
권사회·전도회 연합월례회
각기관 회계교육 / 직분자 안신예배
신년축복심방대원기도회

9

12,18

10

12,19
신년축복 대심방 10일(화) - 2월25일(토)
호스피스 집중사역주간 10일(화) - 19일(금)

11

12,20

12

12,21
주일학교 성경교사 및
찬양경연 전국대회(사령의교회)

13

12,22

14

12,23
원주 LMTC 16기 겨울학기 개강

15

12,24
새가족부 월례회

16

12,25

17

12,26

연합중보기도

18

12,27

해외선교 아웃리치(장년부단기선교)
18일(수) - 25일(수)

19

12,28

20

대한
미안마선교대회 & 선교센터입당행사
20일(금) - 26일(목)

21

12,30

설날 1.C전도축제

22

설날

23

1,2

24

대체공휴일

25

1,4

26

1,5

27

1,6

28

1,7

29

1,8
정기당회 / 새가족 수료식
전반기 학습세례신청(-2월26일)

30

1,9
중등부 고등부 동계수련회
30일(월) - 1일(수)

31

1,10



Holy Bible survey

욥기

김요한 목사

저자와 기록 시기

욥기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욥기는 족장 시대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두고 있다. 욥과 아브라함은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관계다. 욥의 제사장 역할, 가축을 부의 척도로 삼는 것,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의 마지막 회개(42:6) 등도 족장 시대를 암시한다. 저자는 욥이 도덕법을 알고 있었다는 암시도 주지만, 욥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점을 보여주기 원했을 수 있다(창26:5). 욥에 대해 언급하는 에스겔에 근거하면(겔14:14, 20), 이 책은 포로기 이전, 에스겔이 활동하기 오래전에 (주전593-571년 무렵)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욥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말하면, 그는 비교적 젊었지만(15:10) 지혜롭고 부유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욥은 아마도 에돔 지역에 살았지만 에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욥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있지만, 에스겔과 야고보의 언급(겔14:14, 20; 약5:11)은 욥이 단지 우화 속의 등장 인물이 아님을 말해준다.

주요 주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욥의 고난은 전통적으로 이 책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분명히 의인의 고난은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주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많은 독자들이 이 점을 하나의 결함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이 결작의 문학적 비범성(literary genius)을 드러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욥의 고난은 결코 설명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아무리 단순한 대답을 주실지라도, 그 대답은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말로 들릴 것이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엘리후의 질책,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욥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임을 깨닫게 한다. 고난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부차적인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의 주제가 단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의 복합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의인의 시험과 고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이며, 이 모든 것이 욥기 전체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욥기의 주제는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닌 인간이 처한 현실에 관한 것이며, 이 점이 욥기를 더욱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으로 만든다. 욥의 세계는 그 속의 문제들을 아무런 감정도 고통도 없이 논할 수 있는 가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다.

기록 목적

1. 바울은 빌립보의 친구들이 그에게 보내 준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4:10, 14-18)
2.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전하고 싶었고, 특히 그가 갇혀어도 복음 전도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었다(1:12-26). 또한 그는 비록 그 자신도 풀려나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2:19-24).
3.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2:25-30)
4. 빌립보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열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증언하도록 권면하고자 했다(1:27; 2:1-11; 4:2-3).
5.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복음과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했다(3:1-11).
6. 그는 또한 완전에 도달한다는 문제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빠질 위험(3:12-16)과,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주의의 압력 아래 있음을(3:18-21)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바울의 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고난에 맞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주께 맡기도록 격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1:27-30; 2:12-18; 3:17-21; 4:4-9).

개요

- I. 서언(1:1-2:13)
 - A. 주요 등장인물 소개(1:1-5)
 - B. 욥이 받은 첫 번째 시험과 욥의 반응(1:6-22)
 - C. 욥이 받은 두 번째 시험과 욥의 반응(2:1-10)
 - D. 욥의 세 친구(2:11-13)
- II. 욥의 탄식(3:1-26)
- III. 대화(4:1-27:33)
 - A. 대화: 첫 번째 주기(4:1-14:22)
 - 1.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4:1-5:27)
 - 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6:1-7:21)
 - 3. 두 번째 논쟁: 빌닷(8:1-22)
 - 4.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9:1-10:22)
 - 5. 세 번째 논쟁: 소발(11:1-20)
 - 6.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12:1-14:22)
 - B. 대화: 두 번째 주기(15:1-21:34)
 - 1.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15:1-35)
 - 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16:1-17:16)
 - 3. 두 번째 논쟁: 빌닷(18:1-21)
 - 4.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19:1-29)
 - 5. 세 번째 논쟁: 소발(20:1-29)
 - 6.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21:1-34)
 - C. 대화: 세 번째 주기(22:1-27:33)
 - 1.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22:1-30)
 - 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23:1-24:25)
 - 3. 두 번째 논쟁: 빌닷(25:1-6)
 - 4.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26:1-14)
 - 5.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마지막 말(27:1-23)
- IV. 욥의 첫 번째 독백: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28:1-28)
- V. 욥의 두 번째 독백: 욥의 마지막 변론(29:1-31:40)
- VI. 엘리후의 발언(32:1-37:24)
 - A.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32:1-33:33)
 - B.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34:1-37)
 - C.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35:1-16)
 - D.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36:1-37:24)
- VII.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대답(38:1-42:6)
 - A.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38:1-40:2)
 - B. 욥의 첫 번째 대답(40:3-5)
 - C.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40:6-41:34)
 - D. 욥의 두 번째 대답(42:1-6)
- VIII. 후기(42:7-17)

01

주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욥기 20:12-29

새찬송가 28장

- 12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 13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 14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 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 16 그는 독사의 독을 밟으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 17 그는 강 곧 꿀과 영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 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 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 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 20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 21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 22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 23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 24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 25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 26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 28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 29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말씀 암송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욥20:29)



12-19절 그는 독사의 독을 밟으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소발은 음식과 재물의 예를 들면서 '악한 행위는 스스로 형벌을 불러온다'는 법칙을 보여 줍니다. 어린 아이가 단 것을 삼키지 않으려고 마침내 삼키는 것처럼, 악인은 악한 행위를 단 것처럼 물고 있으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삼키고 그것이 뱀속의 독이 되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며, 재물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에 간섭하신다고 강조한다. 악인에 대한 또 다른 징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것들의 결과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20-29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아지리라

소발은 음식과 재물의 예를 들면서 '악한 행위는 스스로 형벌을 불러온다'는 법칙을 보여 줍니다. 어린 아이가 단 것을 삼키지 않으려고 마침내 삼키는 것처럼, 악인은 악한 행위를 단 것처럼 물고 있으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삼키고 그것이 뱀속의 독이 되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며, 재물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에 간섭하신다고 강조한다. 악인에 대한 또 다른 징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것들의 결과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난에 빠진 욥에게 소발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02

월요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욥기 21:1-16

새찬송가 257장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 3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 4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 5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 6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 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 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 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 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 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 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 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 16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말씀 암송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욥 21:16)



1-6절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려고 인과응보를 옹호하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말합니다(2-3절). 욥의 마음은 자신이 겪는 절망스러운 일들로 놀라야 하며, 그들도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 앞에 입을 가리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여쭙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생각만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인과응보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7-16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소발에 말에 따르면 악인의 즐거움은 잠시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오래살고 세력이 강합니다(7절). 악인의 악한 행위가 독을 받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더욱 강성하다가 늙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자손이 불가피하게 재앙을 만난다는 주장에 대해 욥은 반박합니다. 엘리바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욥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의인이 누려야 할 평화를 악인이 대신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악인들의 행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소발의 인과응보 법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믿음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03

화요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욥기 21:17-34

새찬송가 167장

-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고도다
- 19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 21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 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 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 24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 25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 26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 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 28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 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 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 31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라
- 32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 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 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말씀 암송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 21:34)



17-26절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다

욥은 악인이 받아야 할 재앙이 좀처럼 악인에게 내리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악인은 겨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아닌 욥이 애매하게 바람에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보기에 의인이나 악인이 모두 같은 운명이기에 악인의 죽음이 심판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해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찢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운택하기도 합니다.

27-34절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해할 생각만 한다고 비판합니다(27절). 또 욥은 죽음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악인의 성공을 단절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제대로 위로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에 문제가 많은데 어째서 이걸 무기로 자신을 악인 취급하느냐고 친구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한 고난과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요?

04

수요일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기 22:1-30

새찬송가 295장

-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 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 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 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 10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 11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 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 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 14 뻥뻥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 15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 16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 17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 18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 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 20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 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 29 사람들이 너를 낫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 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말씀 암송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22:3)



1-2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는 22장에서 욥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 발언(4-5장)에서 욥을 점잖게 타이르면서 회개를 종용했다면, 두 번째 발언(15장)에선 격앙된 어조로 악인의 결국을 선포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욥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마지막 발언인 22장에서는 두 가지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엘리바스의 논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욥의 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은 철저히 인과응보 법칙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21-30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회복할 것이라고 욥에게 주장합니다.



긴 어둠(고난)을 통과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05

목요일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17

새찬송가 302장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 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말씀 암송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 21:34)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139:7-12을 연상시키는 본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서 옴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며, 자신은 믿음의 연단을 거쳐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06

금요일

어찌하여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욥기 24:1-12

새찬송가 442장

- 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 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 3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 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 5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 6 밭에서 남의 꿀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 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 8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 10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 11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 12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 암송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0)



1-12절 의심과 불신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24장은 욥이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의문을 표명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이 살고있는 이 세상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응보적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이같이 표현한 것은 악인들 개개인들이 당할 심판의 날이나 시점을 각각 다른 것으로 인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며 오히려 득세하는 현실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별히 욥은 여기서 악인들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그리고 굶주린 자에 대한 무자비함을 드러내며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신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결백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상황을 지켜 보고만 있지 마시고 개입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즉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07

토요일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욥기 24:13-25

새찬송가 258장

- 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 16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 17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 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 20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 21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 22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 23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 24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 25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고 욥이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관찰하다',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간음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성도로서 어둠과 죄에서 떠나 빛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이전에 그것을 계획하고 그 마음에 품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은밀히 자리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08

주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욘기 25:1-6

새찬송가 493장

-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 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1-6절 벌레같은 인생의 연약함

25장에서 빌닷은 세 번째로 욥과 변론합니다. 그는 욥에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벌레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벌레와 같이 죄악된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이 죄악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빌닷은 이런 욥에게 벌레와 같다고 하지 말고,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라고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돕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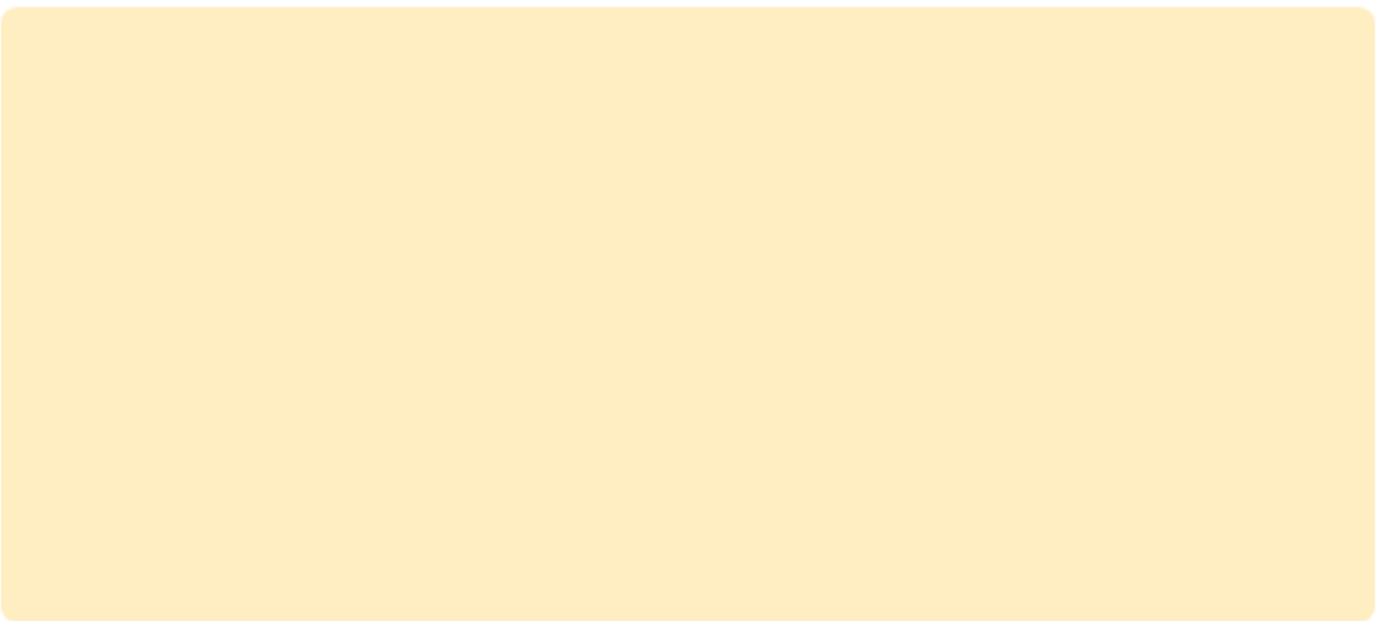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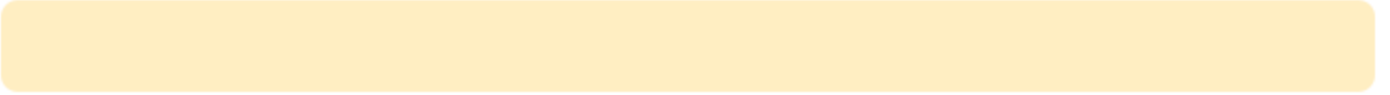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빌닷은 또한 그는 다른 피조물조차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거든, 하물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무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다 욥을 불의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섬세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욥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의롭게 사는 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09

월요일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욥기 26:1-14

새찬송가 369장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 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 8 물을 백백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 9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 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 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말씀 암송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19)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본문에서 욥은 욥의 친구들의 말에 다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내뱉은 말들에 대해 욥은 약간은 비꼬는 말을 통하여, 친구들의 이중적이면서도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구체적인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시고, 구름이 물에 가득차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등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무한한 자비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의 능력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 세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의 은혜와 섭리는 무엇입니까?

10

화요일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27:1-12

새찬송가 293장

-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 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 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 11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말씀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욥의 독백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들의 치열한 변론은 26장으로 막을 내리고, 오늘 본문인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졌을지라도, 또 10명의 자식을 하루에 가슴 속에 묻어야 하는 놀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온 몸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인해서 기와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고 고백합니다(욥27:3) 즉 욥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안에 있으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가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밝히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들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힘들고 원망이 되는 상황속 에서 자기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11

수요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욥기 27:13-23

새찬송가 438장

- 13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 14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 15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 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 17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 18 그가 지은 집은 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 19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 20 두려움이 물 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 21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 22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 23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인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받을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번성해도 칼로 망하고, 그의 후손은 가난해지며, 죽음의 질병에 걸려 죽게 되며, 부자가 되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무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리시는데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주장하기를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서 결국 비참한 삶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보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이 지은 죄이기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욥은 하나님은 악인을 결국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욥은 자신이 여전히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떠나지 않았으며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죄에 대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12

목요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욘기 28:1-28

새찬송가 303장

- 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 2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 3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 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 5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 6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 7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 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 10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 11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 13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 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 15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 17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 18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 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 20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 21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 22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 23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 24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 25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 26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 27 그 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 28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씀 암송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욘28:28)



1-28절 욥의 첫 번째 독백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 발언은 29-31장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이지만, 이 점이 시의 흐름을 방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 중 누구도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 시는 일종의 후렴구로 이루어진 질문(12, 20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후렴구는 시를 다음과 같이 세 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인간의 지적 활동은 아직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1-11절). ②재물로 지혜를 살 수 없다(13-19절). ③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21-28절). 시인이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내릴 때(28절), 욥이 지혜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지만(1:1) 여전히 지혜의 신비의 어떤 면은 욥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하셨도다

이 대화 중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욥이 진정 지혜로운 자임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특별합니다. 짧지만 본질적인 증언을 듣게 된 욥은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38-41장)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13

금요일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기 29:1-25

새찬송가 191장

- 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 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 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 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 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 19 내 뿌리는 물로 뿔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 21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 22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둬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 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보다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말씀 암송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13:14)



2-6절 본문설명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2절) 지난 세월을 그리워합니다. 욥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이 하나님의 은총의 분명한 징표가 되었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욥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욥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서언에 나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1:1, 8; 2:3)와 매우 비슷합니다(시132:9, 16; 롬13:14).

21-25절 본문설명

이 부분은 7-10절과 같은 과거 회상(욥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을 반복하고, 시점이 바뀌어 현재 욥이 친구들로부터 받는 모욕에 대한 이야기(30장)로 넘어가는 전환 단락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 본 적이 있습니까?

14

토요일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기 30:1-31

새찬송가 289장

-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 2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 3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 4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을 꺾으며 대싸리 부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 5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 6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 7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 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 9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 10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 11 이는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 12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덧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 13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 14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 15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 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 16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 17 밤이 되면 내 뼈가 썩으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 18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 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 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 22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 23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 24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 25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 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 27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 28 나는 햇볕에 쪼이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 29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 30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 31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말씀 암송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시43:2)



1-15절 본문설명

과거의 자신과 판이하게 다른 형편에 처한 욥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행동은 쓰레기 더미나 뒤지는 짐승과 같은 자들(1. 6-7절)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재밌거리로 삼으며, 그들의 부모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한 세 친구의 경멸적 태도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욥의 주변에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16-23절 본문설명

욥은 현재 자신의 고난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24-31절 본문설명

욥은 또 다시 이 '인간 청소동물들'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1-15절)과는 정반대로, 그가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았는지 회상합니다(29:12-17).



욥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봅니다.

15

주일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기 31:1-15

새찬송가 218장

-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 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 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 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 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 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 10 내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 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 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 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 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말씀 암송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31:6)



1-4절 본문설명

욥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그분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그 나름의 도덕률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9-12절 본문설명

욥 자신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으며
욥은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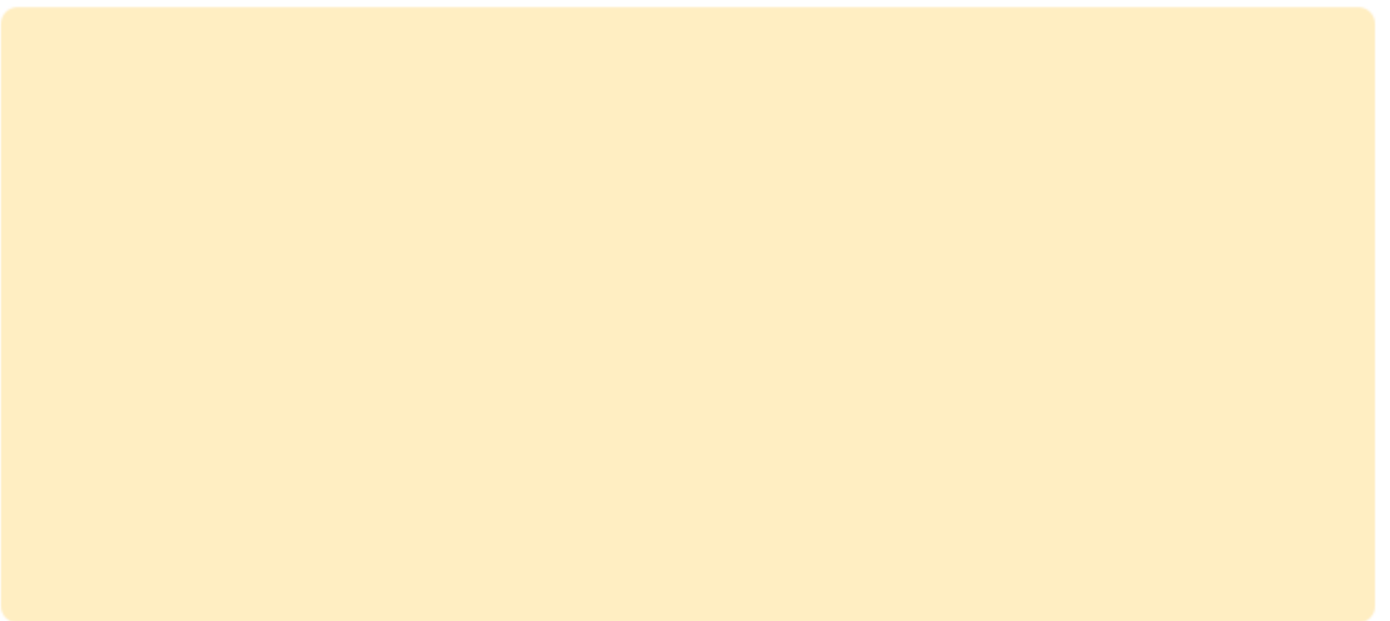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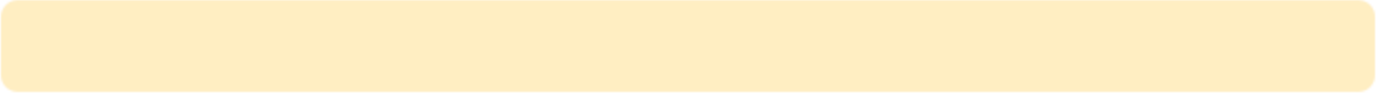
13-15절 본문설명

욥은 자신의 종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욥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반드시 감사로 바꾸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설교 노트〉



16

월요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기 31:16-40

새찬송가 463장

-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하였다면
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38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발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39 만일 내가 값은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말씀 암송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31:23)



옴의 무죄함에 대한 결백

옴은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항상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종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었고 나그네를 선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악을 감춘것이 없으며 전능자(하나님)가 자신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면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17

화요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기 32:1-22

새찬송가 492장

- 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 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 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 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 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 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 11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 12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 13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 14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 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 16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 17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 18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 19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 20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 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 22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의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변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변론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 더 심도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논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과응보론적인 논지로 접근하여 욥을 정죄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의미한 논쟁과 변론에 휘말린적은 없습니까?

18

수요일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기 33:1-22

새찬송가 528장

- 1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 2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 3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 5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 6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흠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 7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 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 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 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 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쭈심의 징계를 받나니
-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 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말씀 암송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18:13)



엘리후의 정죄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도 정직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죄함에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욥의 말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욥의 태도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려진 고난이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음을 주장합니다. 결국 욥이 죄를 범하였을 것이라는 인과응보론적 접근을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19

목요일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기 33:23-33

새찬송가 288장

- 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증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을 얻었다 하시리라
25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6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
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7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
나
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
리라
29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30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1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3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말씀 암송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33)



엘리후의 주장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신다면 회복시켜주셔서 구원하실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고난의 원인, 즉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이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나타남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욥의 중보자이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고난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맞지만 욥이 범죄하였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자신이 욥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재자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다른이들을 강요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습니까?

20

금요일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욥기 34:1-37

새찬송가 525장

- 1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 2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 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 4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 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 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 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 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 16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 17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 18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 19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낮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 20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 21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 22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 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 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니라
- 25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흠으시는도다
- 26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 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 28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 29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올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 30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옳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31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32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 33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 34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 35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 36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 37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말씀 암송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19:12)



엘리후의 주장2

엘리후는 이어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인과 함께다닌다면서 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치 않으심을 변론하며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주장합니다. 엘리후가 볼때에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보다 앞선다는 판단하에 욥을 악한 이들과 한패로여기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는 통로는 무엇이 있나요?

21

토요일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기 35:1-16

새찬송가 410장

-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 2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 3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 4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 5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 6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인 있겠으며
- 7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 8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 9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 10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 11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 12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 13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 14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올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보나
- 15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 16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주장3

엘리후는 욥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함을 드러내며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 회개하지 않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 징벌을 온전히 받지 않은 자의 교만함이라서 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를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22

주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욥기 36:1-21

새찬송가 597장

-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 2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 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 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 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 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 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 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 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 16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 17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 18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 19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 20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 가리라
- 21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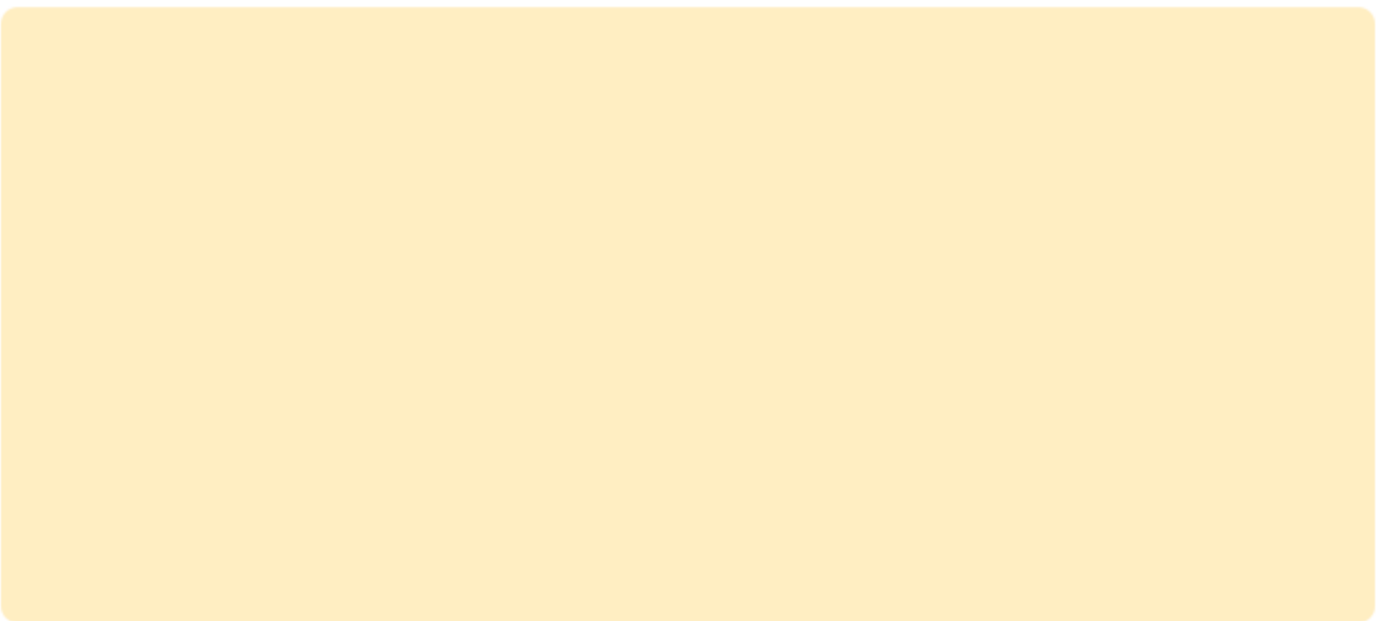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엘리후의 주장4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계속 경청해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노트〉



23

월요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기 36:22-37:24

새찬송가 258장

22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6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28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9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0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31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32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과녁을 치시도다
 33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움을 아느니라

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랴
 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열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둘게 하느니라
 11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2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황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4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랴
 15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8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9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0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22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말씀 암송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37:14)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엘리후는 하나님은 큰 권능과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주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오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며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해봅시다.

24

화요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 38:1-21

새찬송가 285장

-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 10 한계를 정하여 문빋장을 지르고
-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 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 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 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 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 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 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 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말씀 암송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2:20)



1-21절 하나님께 기초를 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에게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뒤 흔드셔도 여전히 그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겠지만 그 전에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과연 하나님께 지으신 지구와 우주 만물의 기초만이 튼튼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기초를 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는 인생은 사실 기초가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말씀에 기초를 세워진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초(기준)를 하나님과 말씀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5

수요일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욥기 38:22-38

새찬송가 302장

- 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 23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 24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 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 26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 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 30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 31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 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 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 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 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 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 38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말씀 암송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3:17)



22-38절 성도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27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아굴이 잠언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잠30:16). 말하자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땅입니다. 풀을 낼 줄 모르는 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땅이 이렇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는 우리 인간의 도량으로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전혀 무용하고, 무익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되었든, 다른 누가 되었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은 광야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믿음의 조그만 싹조차 틔울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부어주셨기에 오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 풍성하심, 광대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결코 넘어지거나 속이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겪고도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까?

26

목요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욥기 38:39-39:30

새찬송가 358장

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6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7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8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9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썩레를 끌겠느냐
11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13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14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15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6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17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18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19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1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22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23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24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히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26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28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29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30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말씀 암송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욥39:29-30)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나귀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절은 들나귀의 자유분방한 습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들나귀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자유함 때문이라고 무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유'입니다. 삶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나요? 왜 자유를 내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하염없이 자유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온 시간 속에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유할 수 없도록 얽어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속박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써 깨뜨려 버리셨으며 다시는 사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써 다시금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것을 끊고 마치 성전 미문의 앞은행이가 고침을 받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7

금요일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욥기 40:1-14

새찬송가 400장

-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말씀 암송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3:18-19)



1-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제된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현현하셔서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폭풍 가운데서' 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늘 듣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경건하며 정제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정제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용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와 유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마음과 자세가 정제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가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값싸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8

토요일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욘기 40:15-24

새찬송가 284장

- 15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20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21 그것이 연 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엮드리니
22 연 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23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말씀 암송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3:6)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본문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하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또한 하마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이로 인한 하마의 평화로운 삶에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마를 인간이 결코 지배할 수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동물의 하나인 하마를 실례로 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부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실제적으로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29

주일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욥기 41:1-34

새찬송가 490장

- 1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 2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쥘 수 있겠느냐
- 3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 4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 5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두겠느냐
- 6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 7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족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 8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 9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 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값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 13 누가 그것의 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 15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 16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 17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 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 19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 20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 21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 22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 23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 24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멧돌 아래쪽 같이 튼튼하구나
-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 26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 27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 28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구나
- 29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 30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 31 깊은 물을 솔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 32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느니라
- 33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 34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말씀 암송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험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렘12:1)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악어의 위용을 드러내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도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고 뛰어나다는 마음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라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끝내 승리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30

월요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욘기 42:1-6

새찬송가 491장

- 1 욘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말씀 암송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롬9:21)



주권자이신 하나님

육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전능성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일이 인간에게 가르쳐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 세나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월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31

화요일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기 42:7-17

새찬송가 283장

-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 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1)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 13 또 아들 2)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 15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 16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 17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말씀 암송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9)



성도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욥은 결국엔 갑절에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현세적 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착하고 머리도 명석하나 인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를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견디고 견디며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모든 고단함을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3. 1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이상호

| 박예일 김요한

| 송주원 손아론

|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